

전남도 '민감분쟁 조정' 외면

6개 시·군 공동 현안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소극 대처
갈등 장기화... 손배금 늘고 '혁신도시 시즌 2' 전략 꼬일 우려

전남도가 전남 6개 시·군 공동 현안으로 떠오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갈등'이라는 이유로 분쟁조정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나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8월29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남도에 공론화 추진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에 참여할 갈등과 논란 해소를 위해 시민 참여 방식의 합리적인 토론·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해당사자인 탓에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수 없다며 전남도가 주관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나주뿐만 아니라 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전남 6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장기화하면 나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를 구축

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전략도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에서 나주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갈등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나주시 측은 이해 당사자의 출구 전략으로 반드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가 공론화를 주관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고 전담했다. 그동안 나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행정적 노력을 했으나 발전소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나주시 차원의 해결에는 한계가 드러난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이같은 공론화 과정 주관 건의에 대해 전남도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이다.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이다보니 전남도가 개입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SRF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자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미적거리는 동안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1년여동안 지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시역 이외의 SRF 반입 반대,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LNG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또 지난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데 이어 손해금액이 커짐에 따라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공사 측은 연료 사용 승인이 보류되면서 매월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고형 연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만들어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지난 2009년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에 따라 27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하지만 난방공사가 애초 나주·화순 등 6개 지역 생활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계획을 변경해 광주를 포함하자 나주시 등이 반발, 10개월째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사실을 알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회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핵·미사일 해체 방안 논의”

폼페이오, 김정은 회동 뒤 방한
문대통령에 방북 결과 설명

7일 오후 북한을 네 번째로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북을 마치고 오산 미군기지로 한국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

원장과 회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잘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며 “우리는 (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에 계속 진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나와 국무부 팀을 응접해줘서 고맙다”고 북한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또 북측 대표단과의 비핵화 협상에

서 어떤 합의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을 떠나 당일치기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후 5시 15분께 오산 공군기지에 상륙했다.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1박 2일간 한국에 머문 뒤 8일 중 중국으로 건너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미중간 현안과 역내·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사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동고

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한국환경정책의 공동대표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다스는 MB 것” 1심 징역 15년

재판부, 뇌물·횡령 대부분 유죄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선고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은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을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났으므로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전례하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제 66기 수습기자 및 관리직
최종합격자
▶ 수습기자 : 정병호·유연재
▶ 관리직 : 김민석
光州日報社

첨단인공지능이 가장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NAVER gj.jobfairs.co.kr 검색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

2018.10.23(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참여기업
대기업 / 광주 중소기업 170여개

주요행사
인공지능면접체험 / 채용상담 등

참여 신청 기한 및 문의
기업 : 2018. 10. 9까지 참여 신청
구직자
- 인공지능 면접 신청 : 2018. 10. 1까지
- 일반구직 신청 : 행사 당일까지

국제케어센터 T. 062) 223-0114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T. 062) 613-5991, 5996
http://gj.jobfairs.co.kr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시방고용노동청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국제케어센터 MIDAS

주관
운영기관